

## I. 교환 파견 동기

“인생에서 단 한 번 뿐인 기회”라는 점이 무엇보다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끝나갈 때 즈음 앞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나는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지?” 따위의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점점 지쳐갔고, 권태와 나태 사이를 오고 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가 보기에 영 좋지 않은 지경까지 이르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자극을 받아 열정을 되찾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지금이 타이밍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곧장 파견 절차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저도 마음만 먹는다면 원하는 대학교에 파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외파견교환학생 신청 절차는 정말 간단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어떤 질문이든 친절하게 받아주고 있어 그 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별로 요구하는 공인 영어 성적만 충족하면 따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씬 덜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은 제게 전에 없었던 설렘을 선물했고, 이를 원동력 삼아 3학년 1학기까지 무사히 마친 뒤 마침내 네덜란드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며 교환학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제가 지역을 선택할 때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영어권 지역인가? 2)물가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

우선 이전부터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유럽 국가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권 유럽 국가 몇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국가라는 글을 보게 되어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도 했고, 영국보다 물가가 싸다는 점 또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선택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University of Groningen은 네덜란드의 도시 중 하나인 흐로닝언(Groningen)을 거점으로 둔 공립 대학교입니다. 저는 너무 시끄러운 지역을 선호하지 않아 수도인 암스테르담(Amsterdam)을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외의 대학 여럿을 후보에 두고 고민하던 중 타학교의 친구 또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친구 학교의 파견가능 명단에서 겹치는 항목을 찾다 보니 이 대학을 최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교보다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어느 학교를 가게 되든 본인만의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2. 파견대학/지역 특징

흐로닝언(Groningen)은 앞서 말씀 드렸듯 수도인 암스테르담과는 기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네덜란드 북부 도시입니다. 때문에 한국인은 물론, 관광객조차 찾아보기 굉장히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저희 학교 주변에 위치한 시내 구역에 주요 시설 및 가게 등이 전부 모여 있어 굉장히 편리했고, 기숙사 친구들이 매주 밤마다 나가 파티를 즐겼던 것을 생각해보면 놀러 다니기에도 좋았던 곳으로 생각됩니다. 이 도시는 시내에서 조금만 걸으면 공원이나 강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수업이 없는 날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그림을 그렸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University of Groningen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양방향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Art 학과(예술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며, 저는 미디어 아트 과정이 포함된 것을 보고 진입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사과대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의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모든 수업이 토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강의 도중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옆 사람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의 활동을 자주 했습니다. 개인 과제는 물론이고 그룹 과제, 그룹 발표 등 학업 부담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비교해보자면 Groningen 한국 교환학생들이 Hanze University에 많이 가는데, 이쪽은 저희 학교보다 로드가 훨씬 넉넉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과 by 과의 느낌이 있는 것이, 경영학 수업을 들은 제 친구와 이과 쪽 수업을 들은 선배의 말을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말을 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저와 같은 과, 혹은 비슷한 느낌의 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영어로 말하는 것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수업을 통해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 1. 비자 신청 절차

네덜란드는 한국인이 입국 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체류를 할 경우 레지던스 퍼밋(Residence permit)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교환학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따로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임시 거주 허가증'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 과정

1) 학교로부터 "UG - ISD: Apply for your visa and/or residence permit"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폼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2) 곧 ISD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어디로 보내라는 메일이 옵니다. 이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이며, 네덜란드 입국 이후 계좌를 개설하면 그쪽으로 돈을 그대로 보내주시 걱정 말고 입금하셔도 됩니다.

3) 학교마다, 혹은 시기마다 상이하겠지만 저는 5210,00 euros를 요구하였습니다(한화 기준 약 760만원). 이때 송금은 '모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으며 한도 등의 문제로 나눠서 입금해도 정상 확인 됩니다. 이때 송금 받는 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학교 번호 검색해서 넣었습니다.

4) 그럼 얼마 후 "University of Groningen - ISD: Confirmation residence permit application

(LET) (흐로닝언 대학교 - ISD: 거주 허가 신청 확인(LET))"을 제목으로 한 메일이 도착합니다. 잘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5) 마지막으로 "UG - ISD: Approval residence permit approval (02) (UG - ISD : 체류 허가 승인 승인 (02))"까지 도착하면 끝입니다. PDF로 임시 거주 허가증 파일을 보내주는데, 이 종이를 꼭 프린트해서 들고 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 종이를 보여 달라 요구하더군요. 또한 추후 '거주 허가증'을 발급 받는 데에도 이 종이가 필요합니다. 거주 허가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 관해서도 아래에 작성해 두겠습니다.

### 거주 허가증 발급 과정

1) gementee Groningen(<https://gemeente.groningen.nl/en/moving-netherlands>) 사이트에 접속하여 appointment를 잡습니다. 보통 입국 후 3일 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갈 예정이라면 한 사람이 두 명분을 함께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약속한 시간에 International Welcome Center에 방문하여 거주 허가증을 신청하면 끝입니다. 이때 준비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rental/purchase agreement(저는 기숙사 비용 결제한 영수증 가져갔습니다), 여권, 그리고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민증 등. 거주허가증이 나와야 계좌 개설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꼭 빠르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령은 대학교에서 하시면 됩니다. (메일로 안내가 옵니다)

### 2. 숙소 지원 방법

아마 저와 같은 학교를 선택하셨다면 SSH(<https://www.sshxl.nl/nl>)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절차가 막 복잡한 편은 아닌데 깜빡했다가는 큰일 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SSH 사이트는 '회원가입'부터 선착순입니다.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해 일정을 확인하시고 회원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계정을 만들고 나면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수강신청 하듯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선착순 숙켓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강 약 3달 전(2023.06.05)에 기숙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결제 관련해서는 메일로 안내가 옵니다.

3)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학과 건물이 시내(Harmony Building)에 있는지, Zernike 캠퍼스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기숙사를 결정하세요. 제가 선택했던 기숙사인 Winschoterdiep은 Zernike 캠퍼스로부터 도보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경영학과였던 제 친구가 매우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 싶어 아래에 기숙사 비교 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가격은 2023-2 기준)

### 기숙사 비교

	Korno	Moesstraat	Esdoornlaan	Blekerslaan	Winschoterdiep
거리 (Harmony Building)	도보 37 분 자전거 10 분	도보 18 분 자전거 5 분	도보 31 분 자전거 8 분	도보 26 분 자전거 8 분	도보 29 분 자전거 8 분

거리 (Zernike Campus)	도보 33 분 자전거 9 분	도보 36 분 자전거 9 분	도보 28 분 자전거 7 분	도보 1 시간 17 분 자전거 21 분	도보 1 시간 17 분 자전거 22 분
거리(시내)	조금 가까움	매우 가까움 자전거로 5 분, 걸어서 15~20 분	가까움 자전거로 10~15 분, 걸어서 40 분	매우 가까움	가까움 자전거로 10 분
월세	100 만	65 만: 3.3 평 74 만: 4.5 평	89 만 6 천: 6 평	77 만	78~82 만
거주 인원	300	50	300	50	300
주방	5~명	다같이	5~명	다같이	5~명
화장실	개인	공용	개인	공용	공용
세탁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유료

Korno가 인기 기숙사고, 한국인들도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한 층에 두 플랫, 한 플랫에 키친과 커먼 룸이 각각 한 개씩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플랫 메이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Winschoterdiep 기숙사에는 플랫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조금 비싸고 와이파이가와 세탁이 전부 유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Esdoornlaan 기숙사 또한 인기 기숙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가려다가 티켓팅에 실패했습니다. Van Houtenlaan 기숙사는 정말 비추천한다고 해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기숙사를 놓쳤다고 해서 멘붕 하지 마시고, 취소표가 풀리니 계속 사이트를 들여다 보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때는 Winschoterdiep가 뒤늦게 매물이 나와 겨우 예약했습니다)

###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따로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고, 평소처럼 서울대학교에 등록금을 내시면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기숙사 비용은 첫 달(€ 1795.30), 마지막 달(€ 1430.94), 정기결제(€ 559.51 \* 4) = 총 € 5,464.28 가 들었습니다. 한화 기준 약 793만원이네요. 참고로 기숙사비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메일함에 들어가 체크를 하고 결제 해 주셔야 합니다. 연체된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쫓겨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돈을 제때 내도록 합시다.

### 4. 기타 유용한 정보

아무래도 금융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제가 썼던 방법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물론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거 찾아보기도 귀찮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했던 대로만 하면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저는 'BUNQ'라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모바일 송금으로

받은 돈만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송금 했던 돈을 이쪽 계좌로 환불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기숙사비, 한국-네덜란드 항공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생활과 여행을 여기 있는 돈으로만 했는데도 부족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역시 모인으로 송금 받으시면 됩니다.

이 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1) BSN 번호(네덜란드의 주민번호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가 없이도 90일 동안 유지가 가능하고, 2) 마에스트로 카드와 마스터 카드를 전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에스트로 카드란 네덜란드 지역에서 사용하는 카드인데, 가끔 마트 같은 곳에서 마에스트로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늘 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추천드리는데 일정은 핸드폰 유심칩 바꿔 끼고 받기 → 거주허가증 발급(이걸 발급 받아야 BUNQ 가입이 가능합니다) → BUNQ 계좌 개설(시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전까지는 환전해서 가져간 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나중에 시간이 날 때 BSN 번호 발급 → 90일이 지나기 전 BUNQ에 등록입니다.

참고로 BUNQ는 매달 계좌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리 큰 돈은 아니니 눈물을 머금고 내주도록 합시다. 다만 가장 저렴한 플랜 가입을 유지하는 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저는 첫 달 무료 이벤트 때 가장 비싼 플랜으로 구독을 해 뒀다가 바꾸는 것을 깜빡해 아주 큰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BUNQ 말고는 Revolut, Travel Wallet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 IV. 학업

##### 1. 수강신청 방법

모든 것은 Department of Art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학과별로 과정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학교 측에서 개강 2달 전 즈음에 Course Selection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 뒤 파일에 작성해 회신하시면 됩니다.

2. 이때 1A / 1B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희 학교는 한 학기 안에서도 두 번의 블럭이 존재합니다. 9월부터 10월, 11월부터 12월 식으로 학기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A와 B 각각 2개 정도의 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하는 과목을 보냈다고 해서 그걸 전부 수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착순인 점도 있고, 자교 학생을 우선으로 배치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차선책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약 1달 후에 내가 선택한 강의 중 수강할 수 없는 강의에 대한 메일이 오는데, 그때 다시 들을 과목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도 남은 강의가 뭐가 있는지 리스트업해서 보내 주십니다.

4. 강의 승인이 완료되면 [progresswww.nl/rug](https://progresswww.nl/rug)에서 수강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표를 에브리타임처럼 확인하고 싶다면 <https://rooster.rug.nl>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s://brightspace.rug.nl> 이쪽은 eTL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Student Portal로 접속하시면 수강하는 과목의 공지 등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5.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끔 소그룹을 선택해야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 소그룹 선택 또한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일로 공지되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수시로 그룹 선택 창에 들어가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또한 Student Portal에서 진행되며, 소그룹에 따라

강의 시간과 요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A,B 블럭 통틀어 세 개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Introduction to Film Analysis

별점: ★★★★★

교재: Film Art. An Introduction (8th or later editions), e-book 기준 약 8만원

강의 내용: 제목 그대로 '영화'를 분석합니다. 필름 형식, 미장센, 시네마토그래피, 내러티브 형식, 편집과 시점, 음향, 그리고 장르 등의 이론적 내용을 배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영화의 장면을 분석하는 것이 강의의 주 내용입니다. 강의 중 다뤘던 영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Bride Wore Red (Dorothy Arzner, 1937), The Conformist (Bernardo Bertolucci, 1970), The Headless Woman (Lucrecia Martel, 2008), All About My Mother (Pedro Almodóvar, 1999), Blonde Venus (Josef von Sternberg, 1932), Fish Tank (Andrea Arnold, 2009), The Seduction of Mimì (Lina Wertmüller, 1972).

강의 방식: 매주 과제로 영화 감상을 내 주고, 그 영화를 강의 시간에 다루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론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 이에 자유롭게 답하고, 조원들과 영화에 관련된 토론 및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과제: 개인 과제(영화 샷 분석) 2회, 팀 발표 과제(영화 종합 분석) 1회

시험: 중간고사 X, 기말고사 홈테이크 방식 (영화 분석 리포트 제출)

특징: 별도의 세미나 없이 주 1회 강의만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자막이 없는 영화를 봐야 하는 주간이 오면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리스닝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또 제 생각에는 굳이 교재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에 교재를 일절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예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학교에서 출석체크를 하는 몇 안 되는 강의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 유사과목: 영화론

### Sociology of Arts 1,2

별점: ★★★

교재: X

강의 내용: 사회학에 예술을 접목하여 배웁니다. 1에서는 Functionalism/Institutionalism, Distinction Theory, Cultural Omnivores, Audience Research 등을 배우고, 2에서는 Art World Theory, Field Theory, ANT Theory, Gatekeepers 등을 다뤘습니다. 사회학자들(특히 Bourdieu)의 예술에 관련된 사상 및 주장이 강의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방식: 주당 강의 1회, 그룹 세미나 1회로 진행됩니다. 그룹 세미나는 그룹 활동과 토의가 주를 이루며 후반부에는 팀 발표를 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Sociology of Arts 2 세미나 시간에는 총 3번의 팀 발표를 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 활동이 꽤나 부담됩니다.

과제: X, 그룹 세미나 발표 후 피드백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과제의 전부입니다.

시험: 중간고사 X, 기말고사 (all 논술형)

특징: 팀 발표 3번을 모두 마치지 못하면 낙제 처리됩니다. 세미나만 출석체크를 진행하며, 결석은 2회까지 허용됩니다. 1회 결석까지는 패널티가 없지만 2회 결석시 추가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과 2를 꼭 연달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1을 듣고 2를 들으면 확실히 내용이 쉽습니다. 그러나 굳이 들으라고 추천할 만한 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사과목: 예술사회학

### 3. 학습 방법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18학점씩 들던 때에 비하면 매일이 천국입니다. 수업 내용이 전부 영어인 것을 감안하고서도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복습 정도만 철저히 하셔도 시험을 통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딩 자료 등이 밀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매주 요일을 정해두고 다음주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전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매주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는 요일 또한 정해두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투자하여 시험 기간에 받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나니 시험 공부는 5일 정도면 충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4. 외국어 습득 요령

영어가 가장 많이 느는 길은 뻘하지만 역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 5. 기타 유용한 정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블록에 2개 정도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교환학생을 가장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엄청난 팁을 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저와 친구는 이 생각을 뒤늦게 하고서는 엄청나게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블록 A 혹은 B에 모든 수업을 몰아서 들으세요. 3~4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동안은 조금 힘들겠지만 다 듣고 나면 나머지 블록을 통으로 놀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럽 여행을 여러 군데 다녀오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하실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 V. 생활

###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사실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죠. 제가 가져갔던 물품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품 체크리스트

여권	+ 기타 필요한 자료	가위/칼	
지갑	현금은 너무 많이 들고 가지 않는 것을 추천	집계핀	음식을 하고 남은 재료 등을 보관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강추
화장품		자전거열쇠	기차에서 캐리어 도난방지용
스킨/로션/크림	캐리어에 넣기. 수하물		

	검사에서 걸리면 다 버려야 합니다		
샴푸/린스/바디워시	가서 사는 것을 추천	세제	가서 사는 것을 추천. 무겁습니다...
샤워볼		섬유유연제	
헤어롤			
		드라이기	
잠옷		고데기	
가방	배낭 여행 다닐 때 좋은 크기로 가져가세요!		
슬리퍼		필통	
모자		노트북	
목도리	가을학기라면 반드시	아이패드	
장갑	챙기세요	충전기	변압기도 꼭 챙겨가세요!

이외에도 안경, 약 등 개인별로 가져가야 할 물품이 상이하겠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추천 드리는 아이템은 집게핀입니다. 의외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가져가면 엄청 유용하게 씁니다.

## 2. 현지 물가 수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하는 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면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늘 친구와 2인분을 요리한 뒤 함께 먹었는데, 한 끼에 약 3~5천원 정도로 커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식점은 비쌉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쌀국수 집은 음료까지 시키면 한 끼에 거의 3만원이었습니다. 백종원의 뒤를 따른다는 마음으로 요리에 재미를 붙여봅시다.

교통비 또한 비쌉니다. 버스는 한 번 타면 3천원이 나갑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Swapfiets(<https://swapfiets.com>)에서 대여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대여비는 가장 저렴한 모델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000원입니다.

##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앞서 말씀 드렸듯이 웬만한 시설은 전부 University of Groningen(Harmony Building)이 위치한 시내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곳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Jumbo, Albertheijn (마트)
- Zara, H&M 등의 의류점
- Hema
- 스타벅스
- 버거킹
- 시청
- 문화 센터
- Swafiets



다 적을 수가 없어 생략했지만 웬만한 시설은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음식점 및 카페가 준비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거의 샬로수길 급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즐겨 갔던 곳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저와 입맛이 맞으신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 Pho Saigon

베트남 쌀국수 집입니다. 제가 위에서 썼던 '정말 좋아하던 쌀국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학기말 즈음에는 거의 중독이 되어서 1주일에 1번은 꼭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장님께서 저를 알아볼 지경에 이르러서 계산할 때 뭘 먹었냐고 묻지도 않으시더군요. Lemon Ice Tea가 일품이니 한 번 같이 시켜서 드셔 보세요.

- Yanagi Ramen

일본 라멘 집입니다. 쇼유 라멘, 미소 라멘 등 익숙한 메뉴가 많을 겁니다. 약간 매콤한 게 땡기는 날에는 어김없이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후식으로 나오는 모찌가 맛있을 것 같았는데, 매번 배가 불러서 아쉽게도 한 번도 시켜 먹지 못했습니다. 혹시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저 대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Multea Choice Groningen

버블티 가게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가게를 발견한 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오레오 밀크티'를 처음 마셨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자주 가니 서비스도 주셔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게 알바생들이 K-Pop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있고 플레이리스트도 한국스럽습니다.

####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 동아리

동아리 활동은 하나 짚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아무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같이 갔던 선배가 윈드서핑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고 보통 두 번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뭐라도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행

역시 교환학생의 꽃은 여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덜란드 교환학생이라면 누구나 유럽 여행을 꿈꾸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여행지 중 좋았던 곳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 Brussels, Belgium

- Brugge, Belgium

- Gent, Belgium

- Barcelona, Spain

이곳에서 초코 츠러스를 꼭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 Paris, France

디즈니랜드 홀로그램쇼가 장관입니다. 그리고 에펠탑은 꼭 밤에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London, UK

1/1 런던아이에서 불꽃축제를 합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지만 서 있느라 다리가 정말 아

팠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편이 전부 막혀서 도착하고 보니 새벽 두시 반이였습니다... 그 래도 오리지널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가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같습니다.

- Frankfurt, Germany
- Heidelberg, Germany
- Interlaken, Switzerland

개인적으로 느긋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가가 심각하게 비싸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seltwald, Switzerland

<사랑의 불시착> 촬영 현장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Grindelwald, Switzerland

- Firenze, Italy

야경이 예쁘고 저녁 즈음의 거리를 걸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 Rome, Italy

그 외에도 제 친구들이 갔던 여행지 중 모로코와 아이슬란드가 재미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Aon(<https://www.aonstudentinsurance.com/en/home/>)에서 유학생보험을 가입하 시면 됩니다. 한 번에 결제하시면 43만원을 내시면 되고, 나눠서 결제하시면 한 달에 약 85,000원 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것은 분할 결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하 는 동안 보험을 활용하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중간부터는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저는 자전거를 타 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자전거 타는 것에 서투르시다 면, 굳이 자전거를 대여하지 마시고 걸어 다니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자전거를 타 고 다니다가 자동차와 부딪힌 전적이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 6. 기타 유용한 정보

이건 소소한 팁인데, 네덜란드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라 언제나 자동차가 제 앞 에 멈춰줍니다. 그러니 길을 건너야 할 때 차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건너 시면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배려심을 발휘하다가 끝까지 서로에게 먼저 가기를 권유하는 상황 에 놓일 수 있습니다.

##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날씨가 너무 좋던 어느 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헤드셋을 낀 채 무작정 밖으로 나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차역에 걸터앉아 떠오르는 문장들을 손에 든 수첩에 메모하고 흔들리는 꽃들을 멍하니 구경하던 그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반 년은 어느새 제 삶의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고, 그렇기에 그 기억을 언제까 지나 소중한 여기려 합니다. 제 삶에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큰 기쁨입니다.

